

건강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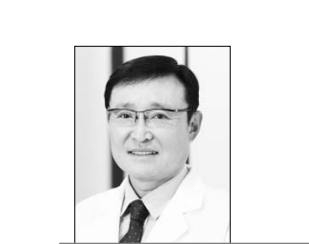
늘어나는 치매 환자... 육창 예방하려면 세심한 관리 중요

**현** 대인에게 치매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꼽힌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국내 치매 진단율과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치매 환자 수는 90만 명에 달하며, 1~2년 새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치매 전문가, 가족, 요양병원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예방, 치료, 돌봄, 교육연구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치매는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증상을 말한다.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의 경우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지푸 같딱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데 초기, 중기, 말기 등 단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초기 치매는 가족, 동료나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단계로 기억 감퇴가 시작되면서 약속이



**박 태 규**  
일산 무지개요양병원 대표원장

나 물건을 기억하지 못 하는 일이 잦아진다.

중기 치매는 어느 정도의 요양이나 간병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혼동하거나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는다. 말기 치매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준으로 식사, 옷 입기, 세수하기, 대소변 가리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보행 장애가 나타나거나 거동이 힘들어져 대부분 누워 지내게 되며,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치매로 인한 합병증에는 영양부족, 욕창, 폐렴, 요로감염 등이 있다.

그 중 욕창은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신체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순환

장애가 일어나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욕창은 임상 소견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피부 손상은 없으나 손가락을 가볍게 눌렀다 떼도 홍반이 남아 있는 상태다.

2단계는 피부의 부분적인 손상으로 얇은 개방성 궤양이 나타난다. 3단계는 근막 이전까지 피부 전층이 손상되거나 괴사된 상태다. 4단계는 광범위한 조직 괴사로 인해 피부 전층이 상실된 상태로 뼈, 힘줄, 근육이 노출된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시간을 맞춰서 변경하기 어렵다면 바꿀 수 있는 만큼이라도

바꿔주도록 한다. 압력을 줄이기 위해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고 땀, 물, 소변 등으로 인해 축축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환자와 주변 환경을 청결히 관리하고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방석과 같은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욕창은 예방이 중요한 질환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 욕창이 발견됐다면 규칙적인 체위변경으로 통증이 잘 되도록 하고 드레싱을 자주 갈아줘야 한다. 욕창이 심하다면 수술적 처방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욕창 환자는 우울증, 근육 약화, 위장질환 등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선택 시에는 욕창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별도의 치매 병동을 운영하는지, 치매 합병증 관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및 의료장비 보유 여부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G7 재무장관 회담 앞두고 니가타역 순찰하는 경찰



10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을 앞두고 경찰관들이 니가타역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G7과 유럽연합(EU) 소속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11일 니가타에서 회담하며 한국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다.

트럼프, 성폭행 관련 소송 '패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 조 태커피나가 9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칼럼니스트 E. 진 케릴에 대한 성폭행 의혹 관련 소송에서 "성폭행은 입증하지 못했으나 성추행은 있었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사설

정여립 자결 장소 논란

진안군이 천반산 죽도 일대 명승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 여론이 갈리기 시작했다. 특히 정여립의 자결 장소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천반 여론은 조선 선조 때 대동계를 조직해 혁명을 꿈꾸다 반정세력으로 몰려 자결한 정여립 자결 장소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1570년 과거에 급제해 예조좌랑과 홍문관 수찬 등을 지낸 정여립은 '천하가 공물인데 주인이 어찌 따로 있는가'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이다.

서인에서 동인으로 전향하고, 스승 율곡 이이를 비판한 일로 낙향한 뒤 천반산 일대에서 대동계를 조직해 활동했다. 하지만 1589년 반역을 꾀했다는 이유로 불합한 뒤 스스로 자결했다.

정여립 역모 사건은 기축옥사로 번져 동인이 몰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진안군과 명

승지 지정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정여립이 죽도에서 자결했다'는 조선왕조실록을 명분으로 꼽는다.

선조실록 1589년 10월 17일에는 "정여립과 그 아들 옥남 및 같은 무리 두 사람이 진안 죽도에 숨어 있다가 말을 들고 군관들을 동원시켜 포위·체포하려 하자, 자살했다"고 돼 있다.

반대 주민들은 정여립 역모 토벌에 나선 진안 현감 민인백 기록을 근거로 '정여립이 자결한 장소가 죽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정여립 자결 장소가 진안군 부귀면 오희리 다복동이라는 얘기다.

죽도와 다복동은 직선거리로 17km 떨어져 있다. 정여립 자결 장소로 다복동을 주장하는 주민 103명은 최근 군에 명승지 지정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기축옥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전에 관광자원화를 하겠다고 나서서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이들 통학로 낸 어느 건물주

자신의 건물을 뚫어 아이들 통학로를 낸 전주 어느 과일가게 부부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해당 부부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일대 수익을 포기했다. 이곳은 10년 전에 주차장이었던 자리다. 이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쇠파이프를 풀었다. 그런데 아침이면 많은 아이들이 파이프 밑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학교를 다녔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고민을 하던 부부는 결단을 내렸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통로가 원래 있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최근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다며 모두 감사하다고 한다. 고객들도 예전보다 더 많이 인사를 나눈다.

이들 부부는 이곳에 건물을 지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10년 뒤에 이렇게 칭찬을 받을

줄은 모르고 건물을 뚫었던 것이다.

요즘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웃들이 칭찬과 호응을 해주고 있다.

부부는 통학로를 낸 것에 대해 후회가 없다. 이익도 따지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 주자는 생각이 전부였다.

사실 건물을 통으로 안 짓고 두 곳으로 나누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었다. 건물을 올리면서 비용도 많이 들었다. 불편한 점도 많았다. 가게마다 평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특히 이들 부부는 가게를 길게 쓰고 있다.

통로가 길기 때문이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건물을 들고 창고에 옮겨야 된다. 부인 김지연씨는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음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다 같이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